

北, 평창 올림픽 선수단·응원단 파견



손 잡은 남·북 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 "고위급 대표단·예술단·태권도 시범단 보낼 것" 남 "이산가족 상봉·적십자 회담·비핵화 대화 열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선수단은 물론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파견한다. 북측이 남측의 대형 국제스포츠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남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총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내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가능한 한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한다고 했다"며 "북측은 공동입장과 공동응원 등도 희망했다. 이번 회담을 획기적인 계기로 이루어지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기초발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뿐 아니라 설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 등을 제안

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평창올림픽에 집중할 것이라 예상을 넘어 현안 보파리를 한꺼번에 풀어낸 것이다. 천 차관은 "2월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도 제의했다"며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조성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만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차관은 이와 관련 "(북측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보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럽대옥·김주식 조가 유일하게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참가신청 마감시한을 넘겨 출전권이 차순위인 일본에 넘어갔다. IOC는 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나라 선수를 초청선수 자격으로 참가시키는 '외외드래프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북측 고위급대표단에 어떤 인사들이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자 평창올림픽을 주관할 경우 북·미 여성 실세의 깜짝 만남도 기대된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문한 바 있다. 이날 남북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 50분 정도 수석대표를 포함한 대표단 3명 간의 1차 접촉을 했다. 이어 개별 오찬 이후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수석대표가 빠진 4대4 2차 접촉을, 오후 4시33분부터 50분까지 20여분 동안 3차 접촉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계엄일지 5·18 핵심 통째로 석재 ▶6면
전라도 1000년 인물-고려 해중 ▶18면
푸른 눈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 ▶20면

국민의당 14일 의원총회 통합 관련 당 진로 논의한다

김동철 원내대표 밝혀

국민의당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에서 9일 3차 탈당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통합에 정치적 명운을 건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한때 의석수가 31석에 달했던 바른정당이 2차례 탈당 사태에 이어 양당 통합국면에서 3차 탈당 사태로 10석으로 쪼그라들자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와 측에선 안 대표를 향해 "결국 뻘썩정치, 뻘썩통합을 하려는 것이냐, 이제라도 통합열차를 멈추라"고 반격을 가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당의 만류에도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생각이 다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통합불참을 선언, 사실상 탈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같은 당 이학재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거취를 고민하고 있어 연쇄 탈당 사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통합찬성파와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탈당 사태가 통합국면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양당의 통합 논의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반대와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안 대표를 향해 "통합하려면 혼자 나가서 하든지, 이제라도 국민의당 정당정신을 잊지 말고 무모한 보수대야합 추진을 중단하

든지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잇따른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가리켜 '보수야합 실패'로 규정하며, "안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무모하게 강행하려는 보수야합 추진에 반발하고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을 의미한다. 이념과 노선이 판이하게 다른 두 정당의 밀실 야합 시도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찬성파 내부에서는 바른정당 3차 탈당 사태에 따른 '뻘썩정치' 공세,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양당 이념 및 노선차이라는 난제보다, 통합의 결실을 위한 전당대회를 뜻대로 치르기 위한 묘안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바른정당 추가 탈당 사태는 이미 예견된 측면이 크고 햇볕정책 역시 논란이 적지 않지만 전당대회가 자칫 무산되거나, 개최되더라도 대표단원의 과반(약 5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통합 무산은 물론 안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와도 같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과 관련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 통합 문제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며 "의원들이 이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한 소신과 철학, 명분이 정해져 토론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억 엔 정부 출연...위안부 재협상 요구 않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

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출발]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돛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 [폭격] 769,000원~

설 연휴 매일 출발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무안 ↔ 돛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돛토리(12:20) / 돛토리(13:00) → 무안(14:20)

돛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 [폭격] 678,000원~
돛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 [폭격] 828,000원~

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돛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순투표금에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회조건: 여행비(인기), 여행자보험(가입대상: 1만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기금(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기사도 봉사료, 선배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